

임상실습교육에서 간호학생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 수 미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사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Activeness in Clinical Education

Kim, Su Mi

Instruct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students' active practice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m. **Methods:** In this study, the factors affecting students' practice in nursing clinical practice were reviewed and their opinions were discussed. **Results:** A limited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 lack of a role model of leading and independent nurse interferes with the active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and negatively affects the image of nurses. On the other hand, semantics that links practice to students' life supports active practice. **Conclusion:** Clinical practicum educators should actively carry out the role of introducing students to rational of their practice, and arrange meetings with nurses and students who carry out nursing care independently with leadership. In addition, the clinical nursing education should include courses that allow students to discuss the various issues they have in the nursing practice.

Key Words: Clinical education, Nursing student, Activeness, Clinical educator

서 론

임상실습교육은 간호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 기술, 태도를 간호현장에 직접 적용하여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 및 관리 능력을 습득하는 것에 필수적인 간호교육과정이다.^{1,2)}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교육을 통해 병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간호현장을 경험하면서 실무능력을 갖춘 미래의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며,³⁾ 간호사의 역할을 확인하고 간호사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형성하여 간호전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발전시킨다.⁴⁾

그런데 임상실습과정에서 간호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한계들은 그들로 하여금 무력감, 좌절, 분노 등의 감정을 겪게 하며, 나아가 간호사 직업에 대한 가치와 진로에 회의적이게 한다.⁵⁾ 다수의 연구들이⁶⁻⁸⁾ 한국의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도덕적 고뇌들을 제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간호사로서의 신념 및 태도형성, 역량발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 예측한다. 특히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적극적이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은 미래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간호사로서의 역할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실습교육자로서의 구체적인 접근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적극적이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문헌고찰과 간호학생, 현장간호사, 학교의 실습교육자로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논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론

임상실습에서 간호학생들은 실습현장의 규칙에 적응하고 주어진 실습과제를 수행하면서 간호대상자들과 교류하며 실

주요어: 임상실습교육, 간호학생, 적극성, 실습교육자

Corresponding author: Kim, Su Mi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03 Daehak-ro, Jongno-gu, Seoul 03080, Korea.
Tel: +82-2-382-1906, Fax: +82-2-765-4103, E-mail: kimsny@daum.net

투고일 2017년 4월 10일 / 심사완료일 2017년 4월 13일 / 게재확정일 2017년 4월 17일

습에 임한다. 그러나 임상실습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은 간호학생들이 실습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나아가 학생들의 간호사로서의 진로 설계에 영향을 준다. 학생들의 임상실습에서의 적극성이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임상실습환경

Park⁸⁾은 임상실습현장에서의 (1) 물리적 환경의 제약, (2) 기본간호술기 위주의 제한된 실습내용, (3) 눈치를 보게 되는 권위적인 현장 분위기들의 영향을 받아 간호학생들이 자부심보다는 의무감에 기초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는 실습교육 본래의 목적과 현실 간의 괴리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4) 간호대상자로부터의 거부를 경험한 학생들은 위축감을 느끼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실습환경의 제약은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신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⁶⁾

첫째, 실습환경에서의 물리적 제약은 다음과 같다; 간호학생들이 실습하는 병원, 지역사회 기관 중 학생들을 위한 탈의실, 학습실의 기능을 겸한 휴게실, 학생들이 활용할 실습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않는 곳이 많다. 처음부터 학생들을 위한 실습기관으로 설계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학생들을 위해 여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하여 학생들에게 탈의만을 위한 최소의 공간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간호현장에서 기본적인 존중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특히 병동에서 학생들은 병동 간호사들을 따라다니거나 환자의 옆에 항상 머물 수도 없고, 실습과 관련한 이론이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공간을 찾지 못해 실습시간 동안 이방인의 입장이 되어 안정감을 가질 수 없다.

둘째, 기본간호술기 위주의 제한된 실습내용이 학생들의 적극성에 영향을 준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서 연습한 간호술기들을 직접 시행해보고 싶어도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아직 자신이 없고, 간호대상자들로부터의 거부가 두려워 활력징후 측정, 침구교환, 혈당체크 등의 간단한 술기만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 한편 학생들에게 직접 간호를 시범보일 현장 간호사들 역시 학생들이 옆에 있는 것 자체에 간호행위를 감시당하는 것 같아 부담스러운 짐으로 받아들여 시범보이기에 소극적일 수 있다.⁹⁾ 이러한 제약은 간호시뮬레이션 실습으로 보완되고 있지만 시뮬레이션 실습이라 하더라도 간호대상자의 변수에 있어서 실제 현장실습과는 차이가 있다.

셋째, 실습현장에서 간호사와 실습학생 사이의 관계양상 역시 학생들의 적극적인 실습을 제한할 수 있다. 실습지에서의

수간호사, 간호사들은 학생들을 평가하고 실습교육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여 학생들은 그들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실습하기 어렵다는 것을 학습한다.⁸⁾ 이러한 권위적인 관계는 현장 실습 교육자의 통제적이고 명령적이며 비판적인 언어 사용으로 나타나고, 학생들은 시키는 대로 반응해야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눈치를 보고 실습교육자를 그대로 따르게 된다.⁸⁾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학생들은 자유로운 질문이나 이의제기, 제안을 하지 못하고 그저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에 간호사들은 적극적인 실습자세가 부족하다며 오히려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한다.⁹⁾ 이렇게 실습학생과 현장 간호사들의 사이에서 어긋난 기대와 오해로 인해 서로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간호학생들과 간호대상자와의 관계에서도 학생들은 쉽게 좌절하는 경우가 있다. 간호대상자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경우, 학생들은 그들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학생 자신의 부족해서라고 자책하면서 간호대상자를 만나는 것에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간호대상자에게 기본적인 간호접근 외에는 시도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실습환경의 제한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실습태도보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실습태도에 익숙하게 만들며, 결국 후일 간호사가 되어 일할 때 순응적이고, 눈치를 보며, 주어진 책임만 다하려는 소극적인 신념에 영향을 줄 것이다.

2. 실습환경의 조정자로서의 임상실습교육자의 역할

그렇다면 이러한 실습환경의 제한과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학생들을 위한 실습현장에서의 물리적 환경 지원, 현장실습교육자와 학생들의 권력관계 개선 등이 필요하지만 실습환경 자체가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고 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라고 하는 것 역시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훈련하려는 실습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동안 학교의 임상실습교육자는 실습현장과 간호학생들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러한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습교육자는 학생들로부터 물리적 자원, 현장 간호사들과의 관계, 간호대상자와의 관계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이나 오해를 확인하고 실습지의 여건 및 간호사들의 입장을 학생들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때 실습환경에서의 제한들로 인한 학생들의 좌절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표

현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체감하는 제한된 실습환경이 학생들의 자존감이나 간호사로서의 자부심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피드백을 받은 사항들 중 실습현장에서의 개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대학과 실습지와의 협의회 등을 통해 건의하고 현장 실무자들의 입장을 듣고 학생들에게 다시 전달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학교 실습교육자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이미 해오고 있던 역할이었지만 이 역할이 학생들로 하여금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미래의 역할 태도에 주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3.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간호에 대한 롤모델

필자는 학교에서 간호시뮬레이션 교육에 참여하면서 흔하게 보이는 학생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다. 간호사가 판단하고 충분히 중재할 수 있는 간호대상자의 호소에 학생들이 자주 보이는 대처는 “주치의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였다. 물론 주치의에게 환자의 상황을 알리고 처치를 의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간호사로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중재마저도 주치의에게 말해 처치를 지시받겠다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학생들의 대처를 보면서 실습현장에서 이러한 간호사의 모습에 익숙한 것이 아닐까하는 염려를 해보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필자나 간호학생들이 현장 간호사들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실습현장, 대중매체 등을 통해 나타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에서 ‘간호사는 독자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한다’는 평가가 낮게 나타났는데,^{10,11)} 간호의 영역과 전문성이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미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간호학생들은 실습현장에서 직접 간호사들의 태도, 역할 수행을 관찰하고, 학교 수업이나 대중매체 등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을 접하게 된다. 학교 수업을 통해 배운 간호사의 역할은 그저 이상적인 이론에 그칠 수 있고 실제로 실습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간호사의 역할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물론 실습 현장에서 간호사들은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간호를 나름 수행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그러나 그러한 간호사의 역할이 실습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학생들은 간호사의 독자적인 역할 수행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은 표면적으로는 간호사가 의사의 오더에 의존하여 간호업무를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장의 간호사들이 자신의 간호처치에 대한 근거를 학생들에게 설명하지 않아 학생들이 미처 그 의도를 발견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간호사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판단하여 간호사의 태도, 역할 수행을 오해하게 되며 간호사의 이미지를 의존적,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결국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열정적인 태도보다는 무력하고 무조건 순응하게 되거나 책임 회피, 두려움,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실습을 하면서 간호사의 태도로 인해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이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표준지침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의료 및 간호행위들을 보면서 도덕적이고 뇌와 간호사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하게 된다.⁵⁾ 물론 이는 현장에서 실제 행해지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생의 입장에서 현장 및 간호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시각을 반영한 문제의식들이 간호현장의 실무자들에게 제시되고, 반대로 그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입장이 학생들에게 설명되어 서로 이해된다면 실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간호사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실습현장에서의 간호역할에 대한 학생들의 오해 및 롤모델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학생들이 현장 간호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을 접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요즘 많은 대학에서 간호사 진로에 대한 과목개설이나 강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간호의 신념을 키우고 진로를 설계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 또한 드라마나 책, 뉴스 등 대중매체에서의 친척적이고 주도적인 간호사의 모습이 발견될 때 그에 대한 소개 및 분석을 학생들과 함께 해나가면서 학생들이 기대하는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교육의 한 방법도 추천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를 병원 간호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병원이나 지역사회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자신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간호 역할과 의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즉 ‘특별한’ 업무를 하는 간호사 뿐 아니라 일반 병동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 역시 자신의 영역에서 어떻게 치밀하게 간호역할을 고민하면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에서 간호사의 독립적인 간호수행을 방해하고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의 문제의식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과정이 주어진다면, 비록 현실 여건이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즉각적인 실천은 어렵더라도 학생들이 이상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그려보면서 기대를 이루는 것에 바탕

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실습을 하면서 실망했던 일부 간호사의 모습들을 비판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롤모델을 발견하고 자신이 닮기를 기대하며 간호를 실천할 때 전체적인 간호사의 이미지 역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문제제기와 기대에 자극을 받아 현장에서도 간호사의 역할 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4. 간호임상실습에 대한 개인적 의미부여

위에 제시한 임상실습의 여러 요인들은 실습생으로서의 의무와 과제에 치중하여 학생의 적극성을 방해하게 된다. 반면 임상실습에 대한 개인적인 의미 부여는 실습에의 적극성과 간호사로서의 신념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문헌고찰이 어려운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주장해보고자 한다.

필자가 간호학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된 계기가 첫 임상실습경험이었다. 실습교육에서 제시한 실습의 목표보다는 인간의 삶에 관심이 많았던 간호학생으로서 실습을 시작하면서 일종의 경이감을 경험했다. 외부로부터 폐쇄된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관계들과 간호대상자들의 삶의 사연들을 실습과정에서 접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의 간호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할지를 나름 생각하게 되었다. 절망한 환자에게 냉정하고 이성적으로만 설명하는 의사의 모습을 보면서 환자와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우선되어야할지를 고민했고, 환자의 증상이나 병리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타과 실습생들의 모습에 분노하기도 하였으며, 치료자들에게 미처 말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호소를 들으면서 치료자와 간호대상자들 간의 벽을 낮출 수 있는 간호접근을 고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을 개인적인 용도의 실습일기를 쓰면서 성찰해나가면서 내 삶의 경험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간호대상자들을 간호하는 것이 나 스스로를 간호하는 것과 다름 아님을 깨달았다. 이렇게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에 대한 신념을 키우고 간호사로서의 이미지를 설계했던 과거의 경험은 임상실습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고, 시간이 흐르고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들을 접한 가운데서도 간호에 대한 신념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실습 교육에 임하는 지금도 아쉬운 점은 실습 시의 그러한 고민들이 같은 실습동료들과, 그리고 실습교육자들과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혼자만의 경험과 제한된 사고 영역에서 결론지어진 것이었다. 지금도 실습

강사로서 실습을 지도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제기되는 이론적 간호지식 이외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학생들 개인의 삶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에 대해 일부 다루어보는 하지만 보다 깊이, 많은 학생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논의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다. 실제로 학생들의 실습 평가에서도 실습시의 도덕적 고뇌들, 간호대상자를 통한 삶의 이슈들이 깊이 다루어지지 못하고 개인적인 고민에 그침을 안타까워함을 몇몇 학생들의 실습교과목평가에서 발견하였다. 반면 이러한 깊은 숙고를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도 일부 있었다.

임상실습교육이 간호사로서의 준비를 위한 이론과 실제의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실습과정 자체가 학생들의 개인적인 삶과도 연결이 된다면 실습교육은 학생 개개인에게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고 실습에의 동기 부여도 될 것이다. 또한 실습에 의무감으로 임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실습과정을 통해 삶에 적용되는 의미를 발견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실습교육자는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실습에 부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실습에서의 경험들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실습교육에서 시도되고 있는 간호대상자의 입장을 체험해보는 실습, 실습일지, 비판적 자기 성찰일지, 디브리핑 등은 실습의 경험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사고하는 방법들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실습교육자는 이런 성찰적인 접근들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피드백을 주도록 한다.

이에 덧붙여 실습 시 경험하고 고뇌하는 공유할 만한 이슈들에 대해 학생들이 주도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과정을 실습 교육 과정의 한 부분으로 비중 있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임상실습에 자발적으로 의미부여하는 과정은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의 이론과 지식을 실제에 적용함은 물론,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의 의미도 정립하여 간호사를 직업으로서만이 아닌 자신이 성장하고 만들어가는 개인적 삶의 한 부분으로서 가치 추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결론

이상으로 간호임상실습에서 학생들이 적극성을 발휘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다. 제한된 실습 환경과 현장 실무자들이나 간호대상자들과의 권위적 관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간호역할에 대한 롤모델의 부족은 간호실습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실습을 방해하고 나아가 미래의 간

호사 이미지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실습 경험을 자기 삶과 연결하여 자발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고년들의 공유 및 열린 논의 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실습과정에서 주체가 되고 적극적인 태도를 발휘하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이 앞으로 간호사로서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할 때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것에 힘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에서 실습현장의 상황과 학생들의 이해를 소통할 수 있는 실습교육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간호사들과의 만남, 학생들이 실습과정에서 가지는 다양한 고년들과 갈등들, 숙고하고 싶은 이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실습교육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실습과정에서 학생들이 고민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는 포럼 형식의 장을 마련하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실습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적극적인 실습교육을 위한 간호교육자의 준비로서 교육자 개개인이 자신의 실습지도에 대한 신념과 지도 방향들을 공유하며 실습교육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토론회의 장을 제안한다. 또한 실습경험에 대한 개인적 의미부여가 실습의 긍정적인 효과와 관련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밝힌 연구를 통해 증명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하는 것 역시 임상실습교육자의 역할일 것이다.

REFERENCES

1. Kwon IS, Seo YM. Nursing students' needs for clinical nursing education.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2;18(10):25-33.
2. Kim HS.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Korean Soc Public Health Nurs.* 2002;16(1):64-7.
3. Yoon J, Kim KJ, Choi MS. The effects on OSCE application before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students. *J Korean Nurs Adm Acad Soc.* 2013;19(2):273-84.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273>
4. Yang JJ. Nurses' image perceived by student nurses before and after their clinical practice.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03;9:64-72.
5. Kim CH, Choi HS.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moral distress in clinical practice.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6;22(3):355-65.
<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3.355>
6. Park HJ, Oh JW.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 Digital Convergence.* 2014;12(12):417-26.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2.417>
7. Lee KH. Mediation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powerlessness and nursing image. *J East-West Nurs Res.* 2010;16(1):261-9.
8. Park MJ. A Study on hidden curriculum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J Yeolin Educn.* 2013;21(4):121-45.
9. Song MR, Kim IK, Kim YK.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faculty and nurses on clinical nursing practicum for nursing students. *Quali Res.* 2010;11(2):106-18.
10. Park SJ, Park BJ. Content analysis of nurse imag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 2014;15(6):3696-705.
<http://dx.doi.org/10.5762/KAIS.2014.15.6.3696>
11. Lee SH, Kim SY, Kim JA.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 Korean Nurs Adm Acad Soc.* 2004;10(2):219-31.